

세상의 끝을 향한 모험, 아르헨티나

꺾아지른 수봉과 광활한 평원, 억겁의 시간이 만든 빙하까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을 만나기 위해 파타고니아의 관문인 엘칼라파테에서 아르헨티나 땅끝 마을로 향한다.

Explore Argentina's southern Patagonia region from El Calafate to the city of Ushuaia at land's end to get a taste of the region's breathtaking natural wonders including glaciers, grasslands and mountains.

written by > KAREN CATCHPOLE
photography by > ERIC MOHL



대한항공은 애틀랜타 직항 편을 매일 운항한다. 애틀랜타에서 경유 편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 국내선을 이용해 엘칼라파테와 우슈아이아로 이동한다. Korean Air flies direct to Atlanta daily. From Atlanta, fly to Buenos Aires and take domestic flights to El Calafate and Ushuaia to explore southern Argentina's Patagonia region.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 여행의 시작점인 피츠로이산. 빙하로 뒤덮인 날카로운 봉우리는 전 세계 하이커들을 불러모은다. Mount Fitz Roy, one of the most iconic landmarks in Patagonia, is a towering massif attracting mountaineers and hikers.

Way Down South

엘칼라파테에서 국내선을 타면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우수아이아에 다다른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비글해협을 탐험하며 펭귄, 가마우지와 같은 신비한 해양생물과 조우한다.

Just a short flight south from the tourist hub El Calafate is Ushuaia, the southernmost city in the world. From here, visitors taking boat trips to explore the Beagle Channel and its islands can see wildlife like penguins and cormorants.





티에라델푸에고주의 주도인 우수아이아는 과거 죄수들의 외딴 유배지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수아이아는 남아메리카 탐험의 허브이자 개척자 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났다.

Located at the tip of southern Patagonia is Ushuaia, the capital city of Tierra del Fuego Province with a pioneering spirit. What was once a remote penal colony is a vibrant hub for exploring southern South America and Antarctica.



↳ 우수아이아는 눈 덮인 마르티알산맥과 비글해협 사이에 자리한다.

Ushuaia is located on the shores of the Beagle Channel and is surrounded by the Martial Mountains.

1 헛간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남미 최남단의 우체국으로 현재도 운영 중이다.

What looks like a waterfront shed is a working post office in Ushuaia, at the southern tip of South America.



2 우수아이아는 티에라델푸에고의 중심 도시지만, 시골의 특색도 간직했다.

Ushuaia is the capital of Tierra del Fuego Province but has the pace and personality of an overgrown town.

3 수시로 차량이 오가는 우수아이아 입구의 대형 안내판이 여행자를 환영한다.

Cars pass through the Ushuaia city entrance portal, which welcomes visitors to the end of the world.

우슈아이아는 남극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운 야생동물을 감상하고자 배에 오르는 여행객의 주요 승선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비적인 여행은 우슈아이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Ushuaia is a major embarkation point for tourists boarding ships to experience the vast beauty and fascinating wildlife of Antarctica. It's a milestone adventure and a great way to ring in a new year.





1



2

© Getty Images Bank



3

© Richard Cummins / Alamy Stock Photo



4



5



6

여행의 거점, 우수아이아 즐기기

1 오래된 바닷가 목장 체험하기 에스탄시아 아르베르톤은 1850년대부터 야마나족의 언어와 문화를 채택했던 선교사 토마스 브리드헤스가 세운 목장 겸 역사 체험 공간이다. 아르헨티나의 오래된 역사적 유물로 브리드헤스 가문의 후대가 관리, 운영 중이다. 농가를 투어하고 아카투스조류박물관과 해양포유류박물관을 둘러보거나 지역의 전통 음식을 즐겨볼 것. 목가적인 경치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르베르톤만이 보이는 숙소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

2 느리게 달리는 열차 탑승하기 '세상 끝 철도'를 뜻하는 엘 트렌 델 핀 델 문도는 우수아이아에서 약 7km 떨어진 중앙역과 티에라델푸에고국립공원 사이를 오간다. 느린 속도의 빈티지 열차에서 승객들은 1시간가량 강과 폭포, 숲으로 이어지는 풍경을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다. 오디오 해설이 7개 국어로 제공된다.

3 박물관으로 변한 교도소 방문하기 낡고 해진 외관에서부터 빈티지한 매력 이 감도는 우수아이아해양박물관. 우수아이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 이곳은 원래 범죄자를 수용하던 교도소였다. 과거 수감자들이 사용한 독방과 공용공간을 단장해 현재 갤러리로 운영 중이다. 우수아이아해양박물관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적, 탐험가, 원주민, 동식물, 선박 모형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전시를 선보인다.

4 남극을 향해 항해하기 국제남극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남극을 방문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다. 우수아이아의 항구에선 신비로운 남극의 풍경과 낯선 야생동물을 만나는 배에 승선할 수 있다. 작은 채빙선을 개조한 유람선부터 5성급 호화 여객선까지 다양하다.

5 광활한 공원, 티에라델푸에고 탐험하기 티에라델푸에고는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위치한 공원보호구역이다. 7만 헥타르가 넘는 지역에 호수, 안데스산맥, 해안선, 아메리카 대륙에 주로 퍼진 이탄습지와 숲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티에라델푸에고국립공원 입구는 우수아이아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시내에서 출발한 버스가 공원 내 6개 정류장에 정차해 접근이 편리하다. 이 지역에만 서식하는 푸에고 붉은여우를 찾는 것도 공원을 둘러보는 쓸쓸한 재미가 될 것.

6 역사적인 식당 라모스 헤네랄레스에서 음식 맛보기 바닷가 오두막을 연상시키는 라모스 헤네랄레스는 한때 잡화점이었지만, 지금은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오랜 역사까지 감상할 수 있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잡화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선반에는 골동품, 장식품, 지역 기념품이 가득해 눈길을 끈다. 언제나 손님이 넘치는 라모스 헤네랄레스 레스토랑에 다다랐다면 직접 만든 빵과 수프는 물론 이 지역 대표 음식인 파타고니아 양고기 요리를 먹어보길 추천한다.

EXPLORING LAND'S END: USHUAIA

1 Visit a Historic Ranch Founded by a Missionary Harberton Ranch is one of Argentina's National Historic Monuments. It's owned by the family of the original settler, missionary Thomas Bridges. Visitors can tour original buildings, visit the Acatushún Museum of Birds and Marine Mammals, enjoy home-cooked meals and spend a night in rooms facing scenic Harberton Bay.

2 Hop on the Train at the End of the World This train departs from the End of the World station, near Tierra del Fuego National Park, around 7km from Ushuaia. During the one-hour ride, passengers can learn about local history (audio is available in seven languages) and take in views of rivers, waterfalls and forests.

3 Visit the Maritime Museum of Ushuaia There's a charm to the kitschy wornness of the Maritime Museum of Ushuaia, the city's most notable structure. Built as a prison, the cells and common area of the museum have been transformed into small galleries where visitors will find exhibits on pirates, explorers, early Indigenous groups, flora and fauna, ship models and more aspects of Ushuaia'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sea.

4 Head to Antarctic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 the White Continent was visited by over 100,000 people last year. Ushuaia is one of just a handful of ports where tourists seeking to witness stunning landscapes and unique wildlife can board refurbished ice breakers or five-star luxury liners bound for the southernmost continent.

5 Explore Tierra del Fuego National Park Covering nearly 70,000 hectares, Argentina's most southerly national park protects coastline, lakes, peat bogs, forests and mountains. The park entrance is around 12km from Ushuaia and a bus route from town includes six stops within the park. As you explore the park, look out for red foxes, which prowl around in this area.

6 Enjoy a Meal at Ramos Generales Restaurant Diners get a side of history with their meal at this cabin-like institution that used to serve as a general store. The original store's shelves remain unchanged, now crammed with antiques and local mementos. Homemade soups and baked goods are crowd-pleasers, and be sure to try regional favorites like Patagonian lamb.